

지금 능력주의는 현대 사회의 주요 화두다.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분배하는 보상과 안정 시스템을 말한다. 제한된 사회적 지위를 놓고 경쟁할 때 신분이나 재산, 운이 아닌 노력과 재능에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정의로워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비판해야 하는 것은 능력주의의 부작용이나 단점에 대해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 운이나 재물로 쌓은 지위를 능력주의라고 포장하며 이런 편차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능력주의의 비판에 대해 중심이 되는 사람 중 한 명이 마이클 셴델 교수님이다. 셴델 교수님은 능력은 재능과 노력의 산물이다 라는 말을 했다. 셴델에 따르면 누군가의 재능이 좀 뛰어나다고 해서 그것을 온전히 '그의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재능이 얼마나 높게 평가받느냐는 것은 사회적, 역사적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완전한 우연의 산물일 뿐이라는 것이 셴델에 입장이다. 예를 들면 고려시대라면 국어, 영어, 수학 공부 잘하는 게 큰 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거라는 말이다. 재능은 이래도 노력은 다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셴델은 노력하려는 의지와 시도 자체도 가정 배경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좋은 선생님과 함께 노력하는 것과 독학으로 노력하는 것의 결과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셴델에 따르면 재능과 노력의 산물인 능력, 그 능력대로 평가를 받고 보상을 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착각이라고 말한다. 한국에서 소개된 그의 책은 재목을 공정하다는 착각이라고 표기했다. 이 책을 읽고 셴델의 의견이 점점 맞다고 생각했다.

책에서 나오는 능력주의의 윤리적 문제 3가지가 나온다. 처음은 능력주의는 성공한 자의 오만을 부추긴다. 라는 말이다. 솔직히 나는 이 말에 적극 동의했다. 그 이유는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노력을 뒷받침하여 성공했다고 이야기한다. 물론 성공한 사람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재가 부정하는 것은 그 뒤에서 받쳐주는 재력과 우연하게 잘 맞아 떨어진 운과 각자의 사회적 영향으로 인해 높게 측정된 재능을 모두 노력으로 인한 능력이라고 지칭하기 때문이다. 이는 성공한 사람에게 착각을 만들어준다. 노력이 있었겠지만 이 뒷받침된 것도 노력이라 생각하게 만들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오만을 심어주고 그 오만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려 능력주의의 윤리적 문제를 퍼트려 다른 사람도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능력주의는 실패한 자에게는 굴욕감을 선사한다 라는 글이다. 이는 첫째와 연관되어 있는 말인데 첫째를 이야기할 때 말했던 다른 사람도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과 연관된다. 이렇게 착각하게 된 사람들이 실패를 겪게 되면 나는 노력

을 해도 왜 성공하지 않을 까 라는 생각을 박히게 만들고 성공한 사람의 뒤에 있는 재력과 재능, 운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는 실패한 사람들에게 곱절로 실망감, 괴리감 그리고 굴욕감을 안겨 줘 더 이상의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 졌다고 생각한다.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윤리적 문제 셋째다. 사회의 공동선과 연대감을 회손 시키는 것이다. 이 말은 그대로 사회에 나갔을 때 성공 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나뉘면서 이 둘의 관계가 점점 틀어지고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가 아닌 서로 좋지 않은 감정만 더 깊게 만드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사회에서도 문제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대학 입시문제가 능력주의의 대표적 예시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 능력주의가 심화되고 확산됨에 따라서 명문대 입학에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1970년대 미국 명문대의 경쟁률 3:1 수준이었지만, 2019년에는 경쟁률 20:1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렇게 치열해진 능력주의적 대입 경쟁의 결과는 어떨까 궁금해졌다. 사회의 이동성의 가능성이 늘어올까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기대를 깨버리고 나에 대한 능력주의의 안 좋은 시선을 더 따깝게 만들었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미국 100개 대학 재학생 가운데 70% 이상이 소득 분위 상위 1/4 가정 출신이고 반면 하위 1/4출신은 3% 미만에 불과하다. 이처럼 애초에 가난한 집안의 학생들은 명문대에 거의 들어가지 못하니 능력주의적 대입 경쟁을 통해서 계층 이동이 활발해지는 것은 아주 미세한 가능성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상류층에 속하는 학생들이 명문대를 졸업한 후에 그 능력주의 광채를 더욱 뽐내면서 고위직과 높은 연봉을 차지하니 불평등은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더 미래적으로 봤을 때 현대사회에서 능력주의를 통해 쌓은 부와 지위는 세습되면서 새로운 특권층을 형성함과 동시에 이렇게 쌓인 능력은 부와 지위를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게 되면서 능력주의의 부작용이 너무나도 잘 일어나게 된다.

만약 능력주의의 찬성 측에서 반박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능력주의를 통해 쌓은 부와 지위는 세습되면서 새로운 특권층을 형성함과 동시에 이렇게 쌓인 능력은 부와 지위를 독점하고 있다고 했는데 생각하기에 명확한 증거가 없어 보이는데 증거 제시와 함께 설명해달라고 반박할 것 같다. 이때 제시할 증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나, 엘지 등등 대기업에서 파생된 기업 예를 들면 신세계, CJ 등등 이런 기업들의 최고 책임자가 삼성, 엘지의 최고 책임자들의 친 인척이 물려받았습니

다. 물론 이 최고 책임자들께서 오만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은 아니지만 능력주의를 통해 공평하지 않게 특권층을 형성하고 부와 지위를 독점하고 있는 것을 예시로 들어 반박하고 싶다.

또다른 반박은